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10일~11일까지 충남 서산 베니키아호텔에서 이정복 사장(앞줄 왼쪽 일곱 번째)을 비롯한 경영진과 본사 처·실장, 사업소장, 주요 부서장 등 처·실장급 이상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했다. /서부발전

서부발전, AI·무탄소 ‘스피드경영’ 착수

2040년 재생에너지 13.9GW 목표

한국서부발전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 전환(AI) 등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스피드 경영’에 본격 착수했다.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3.9기가와트(GW)까지 끌어올리고, 발전소 현장에 실물 인공지능(Physical AI)을 도입해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서부발전은 지난 10일~11일까지 충남 서산 베니키아호텔에서 이정복 사장을 비롯한 본사 처·실장, 사업소장 등 처장급 이상 경영진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서부발전이 추진 중인 태안 청정에너지 개발단지 조성 방안을 중심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무탄

소 에너지 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서부발전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3.9GW를 확보, 정부의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이행에 최전선에서 선도할 방침이다.

발전산업의 디지털 혁신 방안도 구체화됐다. 경영진은 발전소의 안전·정비·운영 혁신을 위한 ‘실물 인공지능(Physical AI)’ 활용 방안과 함께, 생성형 AI 확대 및 업무 특화 AI 플랫폼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하며 현장 생산성을 극대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외에도 서부발전은 경영평가 대응,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 재무구조 개선, 청렴·조직문화 개선 등 주요 경영 현안을 점검했으며, 워크숍에서 도출된 과제들은 검토를 거쳐 현장에 즉각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산업부, ‘EU 공급망 실사지침’ 대응 총력

주요 대기업들과 민관합동 간담회

정부가 유럽연합(EU)의 고강도 환경·인권 규제인 ‘공급망 실사지침(CSDD)’ 세부 지침 마련을 앞두고 삼성, 현대차, 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과 함께 민관합동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업계 목소리를 모아 EU 집행위에 정부 공식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유관기관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간담회를 열고, 현재 EU 집행위원회가 진행 중인 공급망 실사지침 가이드라인의 공개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올해 3월 발효된 공급망

실사지침을 회원국들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역내외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 이행 가이드라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국내 산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정부 차원의 공식 의견서를 마련하고, 이를 기한 내에 EU 측에 제출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오는 2027년 7월경 최종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예정이다. EU 회원국들은 이 지침에 맞춰 2028년 7월까지 자국내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수부-인니,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

LNG 공급설비 개조·실증
CCS 용도 활용 공정설계 주도

해양수산부가 14일 인도네시아 정부와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을 위한 이행약정’을 체결한다.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은 플랜트 건조 이후에 요구되는 운영·유지보수, 해체, 재활용 등을 포함하는 분야다.

이번 약정을 통해 지난 4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업무협약(MOU)을 구체적인 사업 단위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양국의 역할과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한 후속 조치다.

해수부는 인도네시아의 노후 해양플랜트를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설비로 개조해 실증하고, 이를 탄소 포집·저장(CCS)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공정 설계와 해

상공사 등 사업 전환을 주도한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국비 350억 원을 투입해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지 해양플랜트 관련 정보제공과 각종 인허가 발급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양국은 공적 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한 현지 전문 인력 양성 및 우리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교육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인니 교통부 산하 자카르타 해양대학교에 교육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현지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중장기 국내 초청 연수와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한국은 예산 지원과 교육 과정 개발·운영을 맡고, 인도네시아는 현지 교육생 추천과 물자 지원 등을 책임진다.

/세종=김연세 기자

조선업 첫 노사정 협의체 출범 “호황 기회 살려 국가 전략산업으로”

고용부-산업부, 활동 본격화
양대 노총, 주요 조선사 등 동참
운영·실무협의체 상설 운영

조선업 역사상 처음으로 양대 노총과 주요 조선사, 정부가 모두 참여해 업계 현안을 상시 논의하는 대화기구가 출범했다. 전환경 고부가 선박 수요를 바탕으로 장기 호황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조선업 현장에 산재한 숙련인력 부족, 경기 사이클 반복 속 고용 불안 등 해소를 위해 노사정이 협력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1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와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5월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노동자-사용자-협력업체 간 대화 시스템’을 노사정이 두 달여간 논의한 끝에 마련했다.

협의체 출범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조선노연은 물론 한국노총 금속노련까지 노동계 양대 축이 모두 동참하고, 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주요 조선사와 정부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업종별 사회적 대화의 큰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해 상시 대화하는 업종 차원의 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의체가 만들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 모두 조선업에 찾아온 호황의 기회를 함께 살리고 키우자는 하나의 목표 아래 함께 뜻을 모으겠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대표급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나뉘어 상설 운영된다. 실무협의체는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 생태계 구축 ▲청년의 조기입직 및 장기근속 지원 ▲노사 협의로 AI를 활용한 사업장 안전체계 구축 등을 핵심 의제로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의견이 모이는 대로 즉각 성과를 내는 한편, 법안이나 예산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한다

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조선업의 경쟁력은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손끝에서 나온다”며 “지금의 호황이 청년이 찾아오는 꿈이 있고 안전한 일터, 지역과 협력사까지 함께 잘 사는 구조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이 협의체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정이 함께 상생호의 닻을 올린 만큼, 조선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를 굳히고, 그 성과가 청년과 지역, 협력사까지 골고루 닿도록 지속가능한 성장의 향로를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aT, K-외식기업 4곳 日 시장 진출 지원

오사카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비빔밥, 부대찌개, 간편죽, 사과파이
바이어·관람객 1000명에 시식 행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일본 오사카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가해 국내 외식기업의 현지시장 진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오사카 프랜차이즈쇼는 외식·소매·서비스 분야 프랜차이즈 본사와 예비 가맹점주, 유통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서일본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전문 박람회다. 지난 2~3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올해 행사에는 122개 기업이 참가해 브랜드 및 사업모델 등을 선보였다.

aT는 한국관을 운영하며 비빔밥·부대찌개·간편죽·사과파이 등을 주력 메뉴로 하는 국내 외식기업 4개사를 지원했다. 참가 기업들은 대표 메뉴 시식 행사와 함께 브랜드 운영 방식, 가맹사업 모델 등을 소개했다.

행사 기간 한국관에서는 현지 바이어와 관람객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부대찌개 등의 시식 행사가 진행됐다. 참가 기업들은 메뉴 경쟁력과 함께 가맹사업 운영 방식, 유통 기능성 등에 대한 상담을 이어갔다.

특히 해외 사업자가 국내 외식 브랜드의 상표와 운영 노하우를 도입해, 현지에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마스터 프랜차

이즈’ 계약 등이 소개됐다.

일부 일본 바이어는 한국관 참가기업과 푸드코트형 매장 운영과 비빔밥 전문 브랜드 도입 방안을 협의했다. 사과파이 전문기업과는 일본 내 팝업매장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등 후속 사업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aT는 설명했다.

aT의 전기전 aT 수출식품이사는 “일본은 K-푸드에 대한 인지도와 소비 기반이 탄탄한 핵심 수출시장”이라며 “이번 박람회에서 확인한 K-외식의 경쟁력이 실제 진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지 사업자 발굴과 상담, 후속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중부발전-유니슨, 고창서 해상풍력 확장

해상풍력 단지 운영·유지보수 협력

한국중부발전과 풍력터빈 제조 선도기업인 유니슨이 국내 해상풍력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조기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

중부발전은 지난 10일 유니슨과 해상풍력 발전단지 운영 및 유지보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단지 운영·유지보수 계획 수립, 기술 교류, 전문 인력 양성 등 전방위적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

하기로 했다.

특히 양사는 협약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첫 단추로 ‘고창 해상풍력 발전사업(76.2MW)’을 낙점했다. 고창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공동 발굴하는 신규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중부발전은 2024년 제1주 한림 해상풍력(100MW) 준공 및 운영 경험과 올해 추진 중인 신안우이 해상풍력(390MW) 등 대규모 대형 프로젝트에서 축적한 사업개발·운영 노하우를 전격 공유한다. 유니슨은 국산 풍력터빈 제조



고창 해상풍력 사업 조감도. /중부발전

사로서 고도화된 유지보수 경험과 인력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